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LNG선 2척 4천400억에 수주...두달 새 6척

한국조선해양이 대한해운으로부터 LNG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이며 척당 선가는 1.86억달러로 총 계약 규모는 한화기준 4,418억원이라고 보도됨. 선박의 납기는 2023년 10월까지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Oil slips after IEA lowers 2020 demand forecast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2020년 원유 수요량 전망치를 일일 810만배럴가량 하향조정함에 따라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도됨. 브렌트유의 경우 47센트 하락한 배럴당 44.96달러를 기록했으며, WTI는 43센트 하락한 배럴당 42.2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Upstream)

Mozambique port near giant LNG schemes falls to Islamist insurgents

Mozambique LNG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지역 인근 항구가 이슬람반군 손에 넘어갔다고 보도됨. 이슬람반군은 Cabo Delgado 지역의 Mocimboa da Praia(MdP) 항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지역은 Total사와 ExxonMobil사가 주도하는 LNG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짐. (Upstream)

현대로템-울산 '수소트램 의기투합'

현대로템이 수소규제자유특구 울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수소전기 기반의 트램(노면전차) 실증 및 상용화에 본격 나선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은 13일 울산시와 '수소전기트램 실증 및 보급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울산은 지난해 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바 있음. (한국경제)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3일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와 건설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유니티는 실시간 3D 개발 플랫폼을 만든 글로벌 게임엔진 전문 업체로 알려짐.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의 건설 공정을 구현하는 '시뮬레이터' 를 공동 개발한다고 보도됨. (한국경제)

한화, 협동로봇사업 양수

(주)한화는 계열사 한화정밀기계로부터 협동로봇사업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힘. 한화 기계부문에서 협동로봇사업의 로봇공학기술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보도됨. 이날 공시에 따르면, 협동로봇사업 양수가액은 41억5천만원이고 딜 클로징(거래 종결) 일자리는 오는 31일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